

##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은 금산전통인삼농업의 가치

유 학 열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hyyou@cni.re.kr

이 연구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인삼작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FAO(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받은 “금산전통인삼농업”이 갖는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함

### CONTENTS

1.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무엇인가?
2.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 기준과 현황
3.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4. 정책 제언

### 요약

- ◀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농업적, 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과정을 통해 진화해온 보전, 유지 및 전승 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시스템과 이의 결과로 형성된 농촌의 경관을 말함
- ◀ 2018년 7월 현재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은 21개국 총 5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은 4개소가 지정됨
- ◀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세계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농업유산으로 인정 받은 가치는 500년 이상 ‘회복’, ‘순환’, ‘공생’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장기 간의 사이클에 따라 재배지 ⇒ 휴경 + 윤작지 ⇒ 예정지 순으로 이동하는 “순환식 이동농법”을 고수해 왔다는 점임
- ◀ 또한 금산지역 일부 인삼농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가채종(自家採種) 방식을 고수해 오면서 다양한 재래종자를 지속적으로 보유, 보전해 오고 있음. 이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려인삼 유전자 보호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FAO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음
- ◀ 이렇듯 금산전통인삼농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문화 활동 등이 어우러진 후세에 계승해야 할 소중한 농업유산임
- ◀ 금산군은 세계적 농업유산 가치로서 인정받은 전통인삼농업시스템을 향후 어떻게 보전, 관리, 계승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FAO에 제출한 Action Plan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함



# 01

##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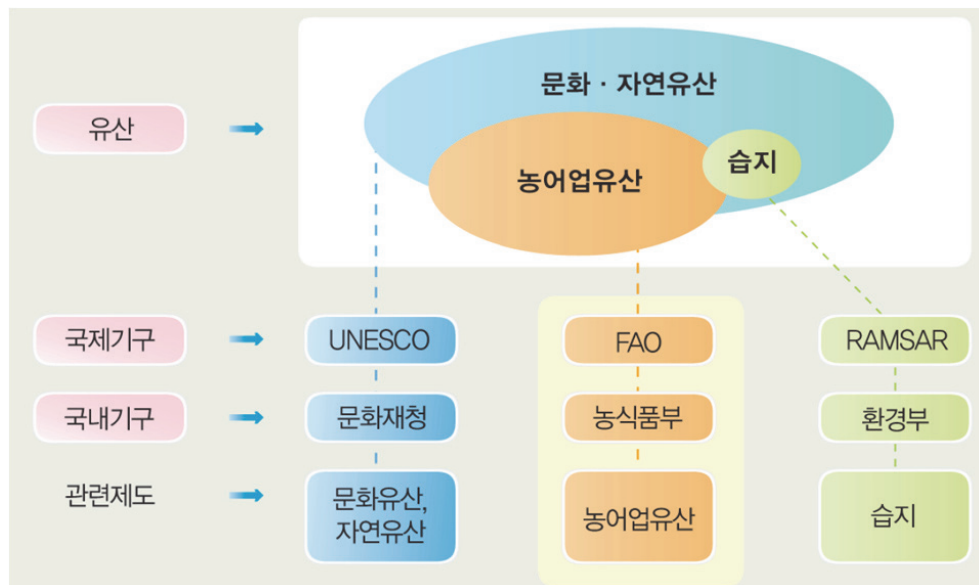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소규모 농업과 전통 농업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을 제안함
  - FAO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전 세계적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며, 그 지역 사회의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요하고 주목할 만한 토지이용제도와 경관'이라고 규정함
  -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기술과 생물 다양성 등을 가진 농업유산을 보전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음
  - 즉 세계적으로 귀중한 농업유산을 발굴, 보전하고 또한 농업유산을 통해 인류에게 중요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인류의 삶과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임
- FAO에서 정의한 농업유산의 핵심 요소는 자연과 인간의 지속적 관계, 오랜 기간 축적된 전통적 농업지식체계, 농업활동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생태계와 농업생물다양성, 농업유산 지역의 주변 환경과 조화된 독특한 토지이용경관(농업경관)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드웨어적 요소에는 농경지, 농업 관련 시설물(농수로, 원예 시설 등) 등에 의해 형성되는 농업경관
  - 소프트웨어적 요소는 전통 농업기술, 전통적 농업지식체계, 전통적 농업활동 지혜 등 농업시스템과 관련된 것

[표 1] 농업유산의 구성 요소

경관 및 시설물(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경지(다랑이논, 경사지밭 등)</li> <li>농업 생산 관련 시설물(농수로 등)</li> <li>농업경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생물다양성</li> <li>토지,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체계</li> <li>전통 농업지식체계 및 지혜</li> <li>전통 농업 관련 축제, 풍습 등 문화체계</li> </ul>

출처: 윤원근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청목출판사

- 세계중요농업유산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유네스코의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문화적 경관 등이 있으며, 각 유산을 관할하는 국제기구, 국내기구에 따라 아래 <그림 1> 처럼 구분됨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지역의 농업시스템과 농업경관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지역주민에 의해 계승되어 왔으며 현재도 지역주민에 의해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이 점이 문화유산, 문화재 등과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음



<그림 1> 농업유산과 다른 유산과의 비교

## 02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과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함
  -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sup>1)</sup>는 2012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세계중요농업유산 기조를 수용하여 도입하였고, 2013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8년 7월 현재 9곳<sup>2)</sup>을 지정함
  - ‘금산인삼농업’은 2015년 3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됨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신청서 제출부터 지정 승인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에 신청서 제출, 사무국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서면 검토함
  - 서면 검토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다음 단계인 과학자문그룹(Scientific Advisory Group)에서 심의함. 과학자문그룹에서는 자문위원<sup>3)</sup>들의 서면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지실사 여부, 신청서 보완, 탈락을 결정함
  - 과학자문그룹의 심사를 통과하면 과학자문위원이 신청지역을 방문 심사하는 현장실사를 실시함
  -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자문그룹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여부를 판단
  - 최종적으로는 FAO 농업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 결정
-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되기 위한 지정 기준은 다음의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식량 확보와 생계유지(Food and Livelihood security): 지역 공동체의 안전한 생활과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나 소규모 농가를 보호, 유지하는 역할을 함

1) 국가중요농업유산과는 별도로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도 있음

2)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1호), 제주발담(2호), 구례군 산수유농업(3호), 담양군 대나무밭(4호), 금산군 인삼농업(5호), 하동군 전통녹차농업(6호), 울진군 금강송산지농업(7호), 부안군 전통양잠농업(8호), 울릉군 화산섬밭농업(9호)

3) 전 세계 대륙별 1~2명으로 총 7명의 자문위원이 있음

- 농업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 동식물의 고유품종과 유전자원 등의 생물다양성을 가지며 농업의 경작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음
  - 지역 및 전통 지식시스템(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에 의해 계승되어 온 농업기술, 농업지식, 생물다양성 보전 지식, 경관 보전 지식 등 유무형의 요소를 의미함
  -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Cultures,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 농업유산 지역 내에 전통적, 문화적, 정신적 사회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체계가 해당 지역의 농업유산 시스템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경관 및 해양경관의 특징(Landscapes and seascapes features): 농업경관을 제공하는 자원 보전과 이용 효율화, 레크리에이션 가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 최근에는 문화적 경관 요소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
- 2002년에 도입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2018년 7월 현재 21개국 5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표 2 참고)
- 국가별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5개소로 가장 많으며, 일본 11개소, 한국 4개소 순으로 나타남
  - 이렇듯 세계중요농업유산 총 52개소 가운데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30개소를 지정받아 전체의 57.7%를 차지하고 있음
  - 지정 받은 52개소 가운데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이후 지정 받은 곳이 20개소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2018년 7월 현재)

Countries	Name of sites/Systems	Year
Algeria	1. Ghout System (Oases of the Maghreb)	2011
Bangladesh	2. Floating Garden Agricultural Practices	2015
Chile	3. Chiloé Agriculture	2011
China	4. Rice Fish Culture	2005
	5. Wannian Traditional Rice Culture	2010
	6. Hani Rice Terraces	2010
	7. Dong' s Rice Fish Duck System	2011
	8. Pu' er Traditional Tea Agrosystem	2012
	9. Aohan Dryland Farming System	2012
	10. Kuajishan Ancient Chinese Torreya	2013
	11. Urban Agricultural Heritage - Xuanhua Grape Garden	2013

Countries	Name of sites/Systems	Year
	12. Jiaxian Traditional Chinese Date Gardens	2014
	13. Xinghua Duotian Agrosystem	2014
	14. Fuzhou Jasmine and Tea Culture System	2014
	15. Diebu Zhagana Agriculture–Forestry–Animal Husbandry Composite System	2017
	16. Zhejiang Huzhou Mulberry–dyke & Fish–pond System	2017
	17. Traditional Mulberry System in Xiajin’ s Ancient Yellow River Course	2018
	18. Rice Terraces System in Southern Mountainous and Hilly Areas, China	2018
Egypt	19. Dates Production System in Siwa Oasis	2016
India	20. Saffron Heritage of Kashmir	2011
	21. Koraput Traditional Agriculture	2012
	22. Kuttanad Below Sea Level Farming System	2013
Iran	23. Qanat Irrigated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Kashan	2014
Japan	24. Noto’ s Satoyama and Satoumi	2011
	25. Sado’ s Satoyama in Harmony with Japanese Crested Ibis	2011
	26. Managing Aso Grassland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2013
	27. Traditional Tea–grass Integrated System in Shizuoka	2013
	28. Kunisaki Peninsula Usa Integrated Forestry, Agriculture and Fisheries System	2013
	29. Ayu of the Nagara River System	2015
	30. Minabe–Tanabe Ume System	2015
	31. Takachihogo–Shiibayama Mountainous Agriculture and Forestry System	2015
	32. Osaki Kodo’ s Tradi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Paddy Agriculture	2017
	33. Nishi–Awa Steep Slope Land Agriculture System	2018
	34. Traditional WASABI Cultivation in Shizuoka	2018
Kenya	35. Oldonyonokie/Olkeri Maasai Pastoralist Heritage	2011
Mexico	36. Chinampa Agricultural System in Mexico City	2017
Morocco	37. Oases System in Atlas Mountains (Oases of the Maghreb)	2011
Peru	38. Andean Agriculture	2011
Philippines	39. Ifugao Rice Terraces	2011
Portugal	40. Barroso Agro–Sylvo–Pastral System	2018
Republic of Korea	41. Traditional Gudeuljang Irrigated Rice Terraces in Cheongsando	2014
	42.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2014
	43. Traditional Hadong Tea Agrosystem in Hwagae–myeon	2017
	44. Geumsan traditional ginseng agricultural system	2018
Spain	45. Malaga Raisin Production System in La Axarquia	2017
	46. Salt production system of Añana	2017
Sri Lanka	47. The Cascaded Tank–Village System in the Dry Zone of Sri Lanka	2017
Tanzania	48. Engaresero Maasai Pastoralist Heritage Area	2011
	49. Shimbue Juu Kihamba Agroforestry Heritage Site	2011
Tunisia	50. Gafsa Oases (Oases of the Maghreb)	2011
UAE	51. Al Ain and Liwa Historical Date Palm Oases	2015
Italy	52. Olive groves of the slopes between Assisi and Spoleto	2018

# 03

##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 1.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전통과 세계적 인삼농업의 중심지

#### ● 1,5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 보유

- 고려인삼은 금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약용식물로서 수천 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중요한 생약으로 사용되어 옴. 인삼을 호칭함에 있어 중국은 ‘고려(高麗)인삼’, 일본은 ‘조선(朝鮮)인삼’, 유럽과 미국은 ‘Korean ginseng’이라 함. 이렇듯 인삼 앞에 ‘고려(高麗)’, ‘조선(朝鮮)’, ‘Korean’을 반드시 붙이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고려인삼의 종주국임을 알 수 있음
- 15세기 이전까지의 인삼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야생인삼(산삼)이었음. 그러나 15세기 이후 인삼 무역량 및 약재로서 이용 증가 등에 의해 인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인삼 채취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됨. 이런 이유로 야생인삼 채취에서 인위적 인삼재배 형식인 이른바 ‘인삼 농업’이 시작되었음
- 조선시대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1454~1544년)」에 따르면 금산군(당시 진산군)은 인삼재배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 오랜 기간 선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전통인삼농업은 금산뿐만 아니라 풍기, 강화, 음성 등 한국 내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역사성, 전통재배 기술의 계승, 국내외적 고려인삼에 대한 지명도를 볼 때 금산지역이 고려인삼의 가장 대표적 지역임

#### ● 세계적 인삼농업의 중심지

- 1923년 5월 한국 최초로 금산군에서는 인삼 농가가 중심이 되어 ‘금산삼업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인삼 관련 조합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움
- ‘금산삼업조합’은 금산에서 생산, 가공된 인삼에 대해 엄격한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을 표준화하여 상품화에 성공함. 그 가운데 ‘금산곡삼(錦山曲蔘)’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함
- 인삼은 한국 내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인삼재배의 환경조건, 재배 기술, 우수 품종 등에 있어 금산지역의 전통인삼농업시스템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음





〈그림 2〉 금산인삼조합관련 기사와 사진

## 2. 전통인삼농업시스템의 특징과 계승

### ● 금산전통인삼농업시스템의 특징

- 금산전통인삼농업시스템은 15세기 전후 산속에서 자생하던 야생인삼을 인공재배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구축됨. 이는 선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약 500년 동안 축적된 전통적 지식체계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음
- 야생인삼은 기후, 토양, 일조량 등 여러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 생육되는 무척 까다로운 작물이기에 인공재배가 매우 어려움. 하지만 금산지역 선인들은 인공재배를 위해 울창한 산속의 야생인삼 재배지 환경을 해발 200~400m의 구릉지로 옮겨옴. 또한 산림 속 나무에 의해 자연 차광된 야생인삼의 생육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짚, 풀, 나무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인위적인 해가림 시설을 고안함
- 또한 지속적인 인삼재배를 위해서는 재배했던 인삼밭의 지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옛 선인들은 장기간 동안 휴경과 다른 작물로 윤작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현재도 변함없이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음
- 금산전통인삼농업시스템의 특징은 ‘자연친화적 순환식 이동농법’, ‘향과 바람의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및 ‘지속가능한 인삼농업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음



〈그림 3〉 금산전통인삼 농업시스템의 특징

#### ● 자연친화적 순환식 이동농법 계승

- 금산지역에서 인삼의 인공재배가 시작된 후 약 500년간 인삼농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10~15년)의 주기에 의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방식인 ‘순환식 이동농법’을 고수해 왔기 때문임. 한 번 인삼을 재배한 곳은 이후 10~15년간 휴경과 타 작물로 윤작하여 스스로 지력이 충분히 회복되도록 함
- 다시 말해 속성(速成)지력 회복 방법인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힘과 인삼 농가의 기다림에 의해 새로운 인삼재배지로 복원(회복)되는 것임
- 인삼농업이 10~15년간의 휴경과 윤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선인들이 수백 년 동안 여러 번 반복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경험적 지식임. 이러한 장기간의 휴경과 윤작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기다림의 농업’이며 독특한 토지이용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인삼재배를 위해서는 지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데, 장기간의 휴경과 윤작만으로는 부족하여 어느 정도 지력이 회복된 농지는 실제 재배에 앞서 반드시 예정지 관리<sup>4)</sup>를 약 2년 동안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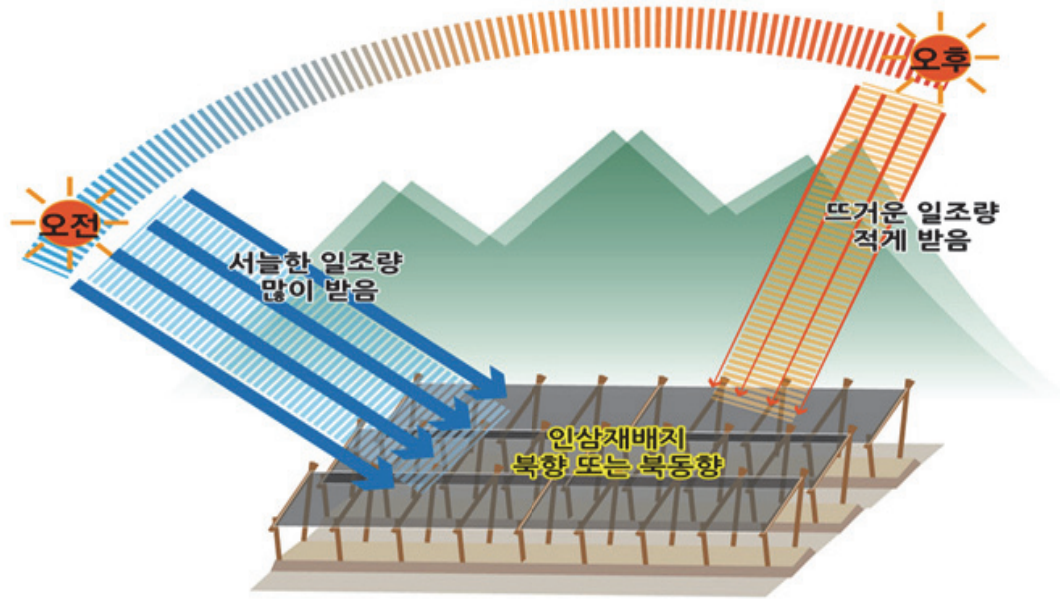


〈그림 4〉 금산지역 인삼농업의 순환식 이동농법 체계

● 향(向)과 바람의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 약 500년 전 인삼의 인공재배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해가림 농법의 창안임
- 당시 인삼의 인공 재배를 위해 울창한 산속의 야생인삼 재배지 환경을 해발 200~400m의 구릉지로 옮겨옴. 또한 산속의 나무에 의해 자연 차광된 야생인삼의 생육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짚, 풀, 나무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인위적인 해가림 시설을 고안하게 됨
- 500년 이상 계승되어 온 해가림 농법은 일부 자재의 원료가 변화되어 왔을 뿐 해가림 시설의 기본 원리와 구조(높이, 폭, 모양 등)는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
- 오랜 기간 계승되어 온 인삼재배지 해가림 농법의 핵심은 ‘경작지의 향과 바람의 순환’ 임. 인삼재배지의 향은 가능한 북향 또는 북동향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이라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고 여름철 고온기에 햇빛을 적게 받게끔 하기 위해서임
- 인삼재배지의 방향을 북향 또는 북동향으로 하면 인삼 생육 환경에 맞게끔 일조량이 조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름철 고온기 인삼재배지(해가림 시설 안)의 기온 상승을 억제해 주는 역할도 함. 그 원리는 여름철 낮 시간 동안 바람이 산의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산 정상 방향으로 불기(곡풍, 谷風) 때문에 해가림 시설 내부의 바람 순환에 도움을 줌

4) 인삼은 한 번 심으면 수확할 때까지 한 장소에서 4~6년간 생육하기 때문에 인삼을 심기 전 인삼 생육에 적합한 토양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인삼재배지의 ‘예정지 관리’라 함



〈그림 5〉 인삼재배지 향에 따른 일조량 변화

### 3. 전통인삼농업만의 독특한 농업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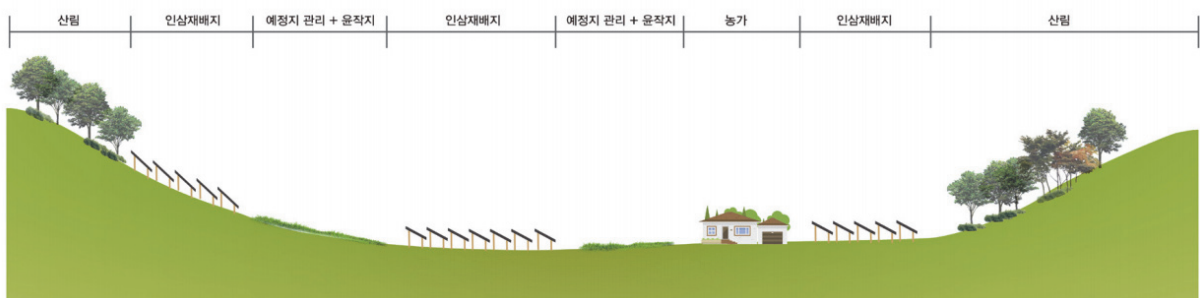
- 자연친화적인 구릉지 경관

- 금산지역은 산지가 많아 구릉지 경작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금산 전통인삼농업경관의 가장 큰 특징임. 금산의 산지 경사지에 만들어진 인삼 경작지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주민들이 순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됨. 이것은 관행농의 대규모 재배기법으로 인삼농업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마을 주변의 구릉지나 골짜기에 소규모 가족농 형태로 인삼농업을 해왔기 때문임
- 금산지역 전통인삼농업은 상대적으로 농경지가 부족하고 분지형태의 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가 잘 발달된 금산의 지형적 특성을 슬기롭게 극복한 자연과의 공생관계를 잘 보여준 결과물임.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인삼 경작지는 배후의 산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대표적 전통인삼농업경관을 이루고 있음





〈사진 1〉 배후 산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구릉지 경관(금산군 부리면)



〈그림 6〉 배후 산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구릉지 단면(금산군 부리면)

#### ● 순환식 이동농법에 의한 패치 경관

- 금산지역 고려인삼 재배지의 또 다른 경관 특징은 산간 구릉지를 따라 패치형태로 자리 잡은 인삼 재배포에서 찾을 수 있음. 인삼 재배포의 독특한 형태와 색채는 인근의 휴경지, 예정지, 그리고 형형색색의 지붕을 가진 주택들, 마을 주변 산과 구릉지, 농경지들과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인삼농업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형성함
- 또한 금산지역의 윤작시스템은 경작지 경관요소(재배지, 휴경+윤작지, 예정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됨
- 즉 10~15년 후에 재배지로 쓰일 휴경+윤작지, 예정지 관리는 지역주민의 생계수단 확보와 경관에 큰 영향을 줌. 금산의 전통인삼농업경관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가변적인 경관이자 지속성이 담보 되는 경관이라 할 수 있음



〈사진 2〉 윤작시스템에 의해 형성되는 지속가능한 경관(금산군 남이면)

## 04 정책 제언

-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 유산자원을 관리, 보전, 계승해 나가기 위한 세밀한 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 주체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함.
-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금산전통인삼농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함
- 전통인삼농업시스템의 체계적 보전,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 요소를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특히 농업 생물다양성, 경관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금산지역 전통인삼농업 관련 DB구축, 농업유산지역 생물다양성 조사, 농업유산지역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통인삼농업 전승 활동 등을 들 수 있음
- 전통적 인삼재배시스템 보전을 위한 전통 인삼재배지 확보 필요
  - 전통인삼농업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삼재배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임. 재배지가 한정되어 있는 금산지역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전통인삼농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삼재배지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해야 할 실정임
  - 500년 이상 전승해 온 고려인삼농업의 전통적 방식과 지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지(忌地)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철저히 대응 필요

- 금산지역은 지형적, 지리적 특성상 예부터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를 크게 받지 않은 지역임. 하지만, 최근 들어 장마철 게릴라성 호우,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통인삼재배지의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면 전통인삼재배지의 정기적 자연재해 방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통적 인삼재배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산사태취약지역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삼에 새로운 병충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의 핵심주체인 지역주민의 역할 명확히 해야 함

- 농업유산은 문화유산이나 문화재처럼 행정주도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계승되어야 함. 이에 지역주민들에게 농업유산의 이해와 가치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또한 농업유산지역 보전, 관리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

유 학 열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041-840-1201, hyyou@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7년도 전략과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에 관한 연구’와 금산전통인삼농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신청서 내용을 재구성 또는 일부 수정한 것임



- 금산군(2017).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연구. 충남연구원
- 금산군(2018). 금산전통인삼농업시스템. GIAHS 신청서. 충남연구원
- 유학열(2013).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념과 사례”.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창립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유학열(2017).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에 관한 연구. 충남연구원
- 유학열(2017). 금산인삼농업유산지역의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충남연구원
- 윤원근 외(2012). 농어촌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연구. 한국 농어촌공사
- 윤원근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청목출판사